

“미래 창조해 온 순천, 이제는 치유도시로”

민선 8기 3년

노관규 순천시장

전라남도 순천시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정원과 3대 경제축 등을 기반으로 ‘치유도시’를 만들기ye 속도를 낸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3년의 시정 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브리핑을 진행하고 미래산업 3대 경제축을 정착시켜 산업 생태계를 본격화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민선 8기 순천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도시 위상과 시민 자부심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순천만정원은 517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방문,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가며 에버랜드를 제치고 국내 1위 관광지로 등극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UN-해비타트 등이 주관하는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가

문화콘텐츠·우주항공·그린바이오 3대 경제축 중심 생활 인구 유치

장 혁신적인 도시모델 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지역경제를 이끌 마중물로 국가정원 콘텐츠를 지속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정원도시를 토대로 문화콘텐츠·우주항공·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전략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애니·웹툰 기업 로커스, 케나즈의 법인 이전을 완료했으며 25개 콘텐츠 기업이 하반기 중 원도심 등에 입주 예정이다.

우주항공·방산 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조립장이 5월 완공됐으며,



노관규 순천시장.

누리호 6호기 제작을 시작으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우주·방산 산업의 전략적 허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승주읍에 바이오·발

효재단, APC, 미생물센터 등 인프라를 집약해 식품, 화장품, 펫푸드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3대 경제축 등 산업 다각화 기반 위에 외부 관계인구나 생활 인구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치유산업 전략도 세우고 있다.

현재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을 중심으로 순천만 인근과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치유산업 기반들을 연결해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 160억원 등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순천만 인근과 도심 곳곳의 치유산업 거점들을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

순천시는 ‘영호남 통합 메가시티 실현’, ‘남중권 미래첨단산업벨트 구축’, ‘세계적 생태도시 도약’을 3대 전략으로 제시하고 영호남 특별지자체 설립, 경전선·전라선 전철화 등 초광역 교통망 구

축,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완성 등을 추진해 통합 메가시티로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토 균형발전의 전략을 추진한다.

또 남중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치유·문화콘텐츠·그린바이오·광역교통망 등을 포함한 8대 핵심과제를 전라남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만큼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연계된 선도 도시 모델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산업·문화·복지·환경을 고르게 갖춘 도시로, 살면서 꼭 한 번은 가 봐야 할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로 쉬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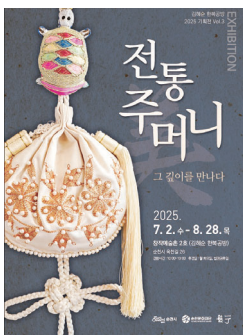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창작예술촌 2호, ‘전통 주머니’ 기획전

전라남도 순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순천창작예술촌 2호 ‘김혜순 한복공방’에서 2일부터 오는 8월28일까지 전통 규방공예의 정수를 담은 기획전 ‘전통 주머니, 그 깊이를 만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섬세한 바느질 문화에서 비롯된 전통 주머니와 다양한 규방공예 소품을 통해 일상 속에 스며든 전통미와 손끝의 예술을 조명한다.

특히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정서가 담긴 전통 주머니를 중심으로 자수 주머니, 장식용 허리 주머니, 전통 색동 조각을 활용한 창작 소품 등 정성과 상징이 어우러



월요일과 화요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www.cfsc.or.kr) 또는 창작예술촌 2호(061-746-2917)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진 다채로운 규방공예 작품이 소개된다.

순천창작예술촌 2호는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신대출장소 유희공간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전라남도 순천시가 신대도서관 신축 이전으로 비어 있던 신대출장소 3층 유희공간을 ‘주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 복합문화공간에는 다목적 회의실(1실), 주민소통 공간(2실), 주민 프로그램실(2실), 댄스스포츠실(1실) 등 총 6개 공간이 마련됐다.

순천=배서준 기자

시는 이달 중순부터 하모니카, 캘리그라피, 라인댄스 등 기존 3개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나은 문화·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디지털기기 활용법 등

전라남도 순천시는 2025년 하반기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무인민원발급기 등 공공 디지털기기 활용법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시청 전산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집합 정보화 교육’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디지털정책과(061-749-5714)로 전화 접수나 직전 주 월요일 시 누리집 바로예약 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최소 5인 이상을 구성해 행정복지센터나 디지털정책과로 전화 신청하면 일정과 장소를 협의한 후 운영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선착순으로 모집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정보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달 26일 순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순천시 서면 서천변 일대에서 ‘다같이 쓰담 걷기’를 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생태복지 실천 ‘다같이 쓰담 걷기’

전라남도 순천시는 최근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서천변 일대에서 ‘다같이 쓰담(쓰레기 담기) 걷기’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쓰담 걷기’는 민·관 합동 생태복지 실천사업으로, 김경오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분야에 ‘환경과 복지의 공존’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시작된 생태적 복지실천사업 ‘다같이 쓰담 걷기’에는 지난 2022년부터 총 15회,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 내 하천 환경 보호를 위해 EM 흙공을 직접 제작해 하천에 투척하는 등 수질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

아 환경과 복지를 아우르는 실천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태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7월에 구성된 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신속한 서비스 연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불법투기 집중 단속

전라남도 순천시가 여름 휴가철 쾌적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9월 초까지 관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관리 대상지는 주암면 소재의 광천 수중보, 용오름 계곡, 접치 계곡, 송광면 소재의 왕대계곡, 장안계곡, 낙안면 소재의 이미대 계곡, 상사천, 서면에 위치한 정소골 계곡, 구상골 계곡, 황전면 소재의 수

평교 다리 밑, 황전천과 상사면 소재의 이사천 등 총 12개소다.

이달부터 주요 피서지 별 쓰레기 정리·배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현수막 설치,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수거함을 배치하는 등 쓰레기 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피서객이 집중되는 8월부터는 폐기물의 적체 및 불법투기 등의 상황 발생 시 환경미화원으로 이뤄진 기동처리반을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극 대

응할 방침이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반사회, 마을방송을 통해 피서객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도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휴가철이 끝나는 9월부터는 잔여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생활쓰레기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악취 발생 등 심각한 불편감을 조성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서객도 쓰레기 줄이기와 되가져가기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